

# 철거·폐기물 처리비 해결 요구 현수막

## 간성읍 입구 무의림 의료재단 병원 외벽 ... 재단 관계자 “조만간 해결·공사 재개”

간성읍 시가지 초입에 위치한 무의림 의료재단의 병원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병원건물 곳곳에 ‘건물주는 철거비 및 폐기물 비용을 빨리 처리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올해 내로 개원할 것으로 알려진 무의림 병원이 올해초부터 공사가 중단된데 이어 최근에는 철거비 등을 해결하라는 플래카드까지 나붙자, 앞으로 병원공사가 어떻게 전개될 지 궁금해하고 있다.

무의림 의료재단은 지난해 6월 11일 연면적 4,248㎡ 규모에 6층 69개 병실을 갖춘 병원 용도로 승인을 받고, 지난해 말부터 기존 사우나시설을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초 공사가 중단됐으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직까지 병원공사를 위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결과 무의림 의료재단의 병원 건물은 지난 5월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경매2계에서 농협중앙회의 양수인 A유한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됐다가 기각된 데 이어 최근에도 경매가 진행되다 기각됐다.

이번에 플래카드를 내건 업체들은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용을 받지 못한 업체로, 속초지역 B업체에 철거비 8천500만원과 고성지역 C업체에 폐기물처리비 4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무의림 의료재단 관계자는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용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우리와 협의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플래카드를 내건 것”이라며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간성읍 입구에 위치한 무의림 의료재단의 병원건물에 최근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용을 해결해 달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재단 이사들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을 뿐, 병원을 개원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최대한 빨리 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 “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 다사모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 ... 대한석탄공사 후원

다문화가정을 사랑하는 모임(다사모, 회장 남영자)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다문화 가정들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8일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전개했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오전 11시부터 다사모 회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에서는 거진을 거진10리2반 고이께가뜨오씨 등 10가정에 각 300장씩 모두 3천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연탄은 대한석탄공사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대한석탄공사 노조 지부장 등 10명도 직접 연탄 배달에 동참했다. 석탄공사는 매년 3천장의 연탄을 후원하고 있다.

한편 다사모는 9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 다문화가정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 다사모 회원들이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에 참가해 직접 연탄을 나르고 있다.

다사모 관계자는 “이번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통해 작은 나눔으로 소외된 마음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전달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돕는데 앞장 서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제49주년 소방의 날 행사 개최

속초소방서(서장 최민철)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주년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송종찬 지방소방위 등 3명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고, 죽왕의용소방대 김용호 대장과 현내의용소방대 최복영

대장 등 9명이 소방방재청 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11명의 유공자가 표창장을 받았다.

이에 앞서 오전 8시부터 속초 아남프라자 등 속초, 양양, 고성 3개 지역에서 불조심 가두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기념 행사 후에는 친목도모를 위한 한마음 체육행사도 열었다.

최광호 기자

## 범죄예방 고성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법무부 범죄예방 고성지구협의회 안봉식 회장과 회원 등 10여명은 지난 11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동광산업과학중고등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백옥식 시민기자

산/불/조심